

# 지금 이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 \_ pigheadlab

# TIME NOW

2024. 3  
스물한번째

**김 가 영**

아빠와 야구와 나

**김 유 주**

솜땀예찬과 그리운 우둔타니

**김 희 진**

점선에 갇힌

**이 채 연**

고양이 그리고 그림

**줄 리**

단호박

**제 이 드**

생존일기 II





표지이미지 :

제주도 한 식당의 갈치조림. 제주의 해산물이 유명하다 정작 식당에 방문하면 수입 해산물도 많다. 언젠가 식당에서 고등어 구이를 시켰을 때 노르웨이산 고등어였다는 것을 알고 조금 섭섭했던 적이 있다.

제주 라이딩 종주 중, 내리던 비가 너무 거 세져 우연히 들린 식당에서 시킨 갈치조림과 전복죽. 갈치조림이 결코 저렴한 음식이 아니고, 제주도 물가 비싸다 하지만 정작 근래 급등한 서울의 물가와 크게 다르진 않았다. 갈치는 당연히 제주산. 조림을 양념 채 한 손갈 떠 흰 쌀밥에 얹어 한입 넣으면 매콤하며 짭조름 한 맛이 따뜻함과 함께 밀려온다. 개인적으로는 감자를 넣은 갈치조림을 더 좋아하는 편이나, 겨울을 난 무라 그런지 맛이 일품이다. 다음 한 손갈에 무를 밥에 얹어 비벼본다.

전복죽은 시중의 프렌차이즈 전복죽보다 훨씬 진하고 전복 살이 많았다. 새삼 전복죽을 먹으며 이렇게 전복 살을 씹어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였다. 또한 전복내장은 어떨 때는 맛이 조금 불편하거나, 혹은 전혀 맛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 죽은 적당히 초록빛을 띄는 게 아낌없이 썼구나 생각이 들었다.



김 가 영  
책과 그림을 읽는 사람

## 아빠와 야구와 나

아빠는 롯데 팬이었다. 봄꽃들이 다투어 피고 제법 날씨가 폭해지기 시작하면 안방 티비에서는 잔루 2루 삼자범퇴라던가 높이 뜬 공 외야수가 처리합니다 혹은 볼 카운트 투 앤 원 몸쪽으로 떨어지는 공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꽃이 피고 매미가 울고 단풍이 물드는 것을 프로야구 중계와 함께 하는 ‘롯데 아재팬’의 딸이었다. 아무도 야구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스스로 알고자 한 적 역시 없었지만 시나브로 나는 아빠와 티비 앞에 나란히 앉아 공이 높다거나 제구가 안된다는 소리 따위를 제법 늘어놓을 줄 아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부산 갈매기’이자 전형적인 ‘갱상도 사나이’였던 아빠는 애정표현에 무척이나 인색했는데 이해는 하면서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양반이 하루는 박정태 선수 사인볼을 가져와 니 해라, 하셨다. 그게 다였다. 전후사정 같은 것을 한두마디 덧붙일만도 하건만, 아빠는 DNA에 설명 내지는 표현이라는 항목이 누락된 염기서열을 가진 ‘부산 사나이’ 아니던가. 박정태 특유의 다리 떠는 타격 자세를 당신 앞에서 따라하며 제법 애교를 피우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 야구공이 당신의 사랑 표현이었다.

나는 나이를 먹으며 아빠없이 야구장을 가고 부산 갈매기를 불렀다. 그사이 사인볼 하나에 헤헤 웃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갔고 그 시간들에 나는 때로 아빠를 원망했고 연민했다. 미워했고 사랑했다. 타자의 타격 자세나 투수의 와인드 업을 흉내 내며 까불대던 시절은 그렇게 시간의 뒷안길로 멀어져 갔다.

이별은 별안간 찾아왔다. 처음 쓰러진 이후로 아빠는 입퇴원을 반복하는 고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마지막이었다. 겨울이었고 추웠다. 하늘이 파랬던가. 구름이 끼었던가. 아빠 없는 하늘 아래 나는 몹시도 울었다. 어김없이 봄이 오고 프로야구 개막 소식이 들려왔다. 아빠가 없는데도 봄이 찾아온다는 것이 기이하게 여겨졌다. 초록으로 넘실대는 환한 봄볕에 알 수 없는 적의를 느끼며 나는 또 울었던가. 봄바람이 불었던가. 이후로 오래 나는 야구와 무관하게 살았다.

구회말 투아웃 주자 만루 투쓰리 풀카운트. 공 하나에 경기의 승패가 갈리는 절체 절명의 순간이다. 공이 던져지면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승패가 가려지고 경기는 막을 내린다. 내가 간과했고 후회하며 받아들이기까지 뼈저리게 아팠던 지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끝도 없이 공을 던질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 마지막 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나를 떠난 공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 말이다. 효도든 불효든 뭐가 되었든 다음에, 다음에..... 결국 다음 같은 건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고 절절히 후회해도 아빠를 만날 수 있는 다음 같은 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세월이 참 모질고도 아팠다. 계절은 다시 돌아오고 프로야구도 계속 개막하지만 그속에 당신은 없다. 중견수 플라이로 끝날 평범한 타구를 놓치고 실책하는 롯데를 보며 올해도 우승은 못하겠다, 하면 기대도 안한다, 대답할 당신이 딱 그리운 날이다. 나 죽으면 아빠 다시 만날까. 내가 죽을 때까지도 롯데는 우승을 못할테니 아빠 만나 롯데는 여전해, 하면 그럴 줄 알았다, 하시려나. 만나면 사랑한다 말하리라. 말 못했다. 실컷 못했다. 못하게 될 줄 몰라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처 못한채로 그리움이 먼저 되어버린 당신. 당신이 좋아하던 것을 이어 좋아하게 된 당신의 하나뿐인 딸. 그딸은 자라 유독 혼자라 느껴지는 날에 투수가 던지는 공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 포수의 글러브 속으로 날카롭게 흘러 들어가는 공을 보며 나를 떠나면 그것으로 끝인, 되돌릴 수 없는 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오늘 또 어떤 돌아올 수 없는 공을 마구 던져대며 살았는가 헤아려 보는 사람이 되었다.

어릴 적 내가 살던 집 안방 티비 앞에 아빠와 나란히 앉아 야구를 보던 시간을 떠올려 본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고,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시간을 잊지 못하는 늙어가는 내가 남았을 뿐이다. 소중한 것,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은 왜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는 것일까. 어릴 때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도처에 남겨두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되어 골수가 시리게 후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생인 것만 같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때로 견딜 수 없이 쓸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끝끝내 존재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후회는 버려진 서슬처럼 가혹하기도 할 것이다.

공이 던져지면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승패가 가려지고 경기는 막을 내린다. 돌아올 수 없는 공을 마구 던져대며 살지 않기를 바라서 아빠는 그렇게 일찍 나를 떠나버린걸까. 생각하면 그리움이고 떠올리면 아픔이다. 아빠와 야구와 나.



## 썸땀예찬과 그리운 우돈타니



김 유 주  
쉬어가는 사람



태국을 여행하면서 썸땀이라는 음식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썸땀은 영문명으로는 ‘papaya salad’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파파야를 채썰어 만든 샐러드다. 오독오독 씹히는 파파야의 식감이 참 재미있는데, 참외의 하얀색 부분의 식감과 비슷할 것 같다.

샐러드 답지 않게 매운 고추가 들어간데다 짜고 자극적인 맛이 강해서 종종 김치와 비교되기도 한다.

기본적인 썸땀부터 옥수수, 게, 생새우, 익힌 새우 등 다양한 재료가 곁들여진 썸땀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게다가 판매하는 음식점마다 조금씩 맛도 달라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그 중 썸땀뿌빨라는 삭힌 게를 넣어서 만든 썸땀인데, 나무 위키에 의하면 썸땀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꼽힌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인 여행자들이 흔히 먹는 음식은 아닌데, 아무래도 덥고 습한 동남아의 기후와 재료들의 보관상태가 불필요한 걱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나 역시 처음에는 탈이라도 날까 걱정이 되어 썸땀뿌빨라



는 시도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썸땀은 맛있었고, 먹을 수 있는 썸땀은 종류별로 다 먹었다. 결국 망설임 끝에 꼬라비에서 썸땀뿌빨라를 먹었다. 참고로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음식 투정이나 편식 없이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었다. 하지만 여행하면서 내가 입맛이 까다롭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1년여의 여행 동안에도 음식을 주문하고 먹을 수 있었던 날보다 먹을 수 없었던 날이 더 많았다.

그런 내게, 썸땀뿌빨라는, 감동 그 자체였다.

비릿하면서도 진하고 깊은 짠 맛이 우리나라의 젓갈 같았는데, 새로운 음식임에도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간장게장과는 또 다른 맛이지만 눈물 콧물이 날 정도로 매운 고추향과 진하게 짠 맛이 온 몸을 자극해 에너지를 한껏 끌어올리는 느낌일까. 내 입맛에는 딱이었고, 썸땀뿌빨라는 태국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찾는 메뉴가 되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으로, 미식의 나라 3개를 꼽자면, 태국, 베트남, 터키인데 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먹거리가 풍부한 나라다. 무엇을 골라도 웬만해선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 태국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역시 썸땀이었고, 썸땀뿌빨라를 먹은 이후로 썸땀에 대한 마음도 커졌다. 그러다 썸땀의 본고장이 이싼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때부



터 나는 이싼 지역에 갈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다 채워지고 있었고, 우리는 슬슬 라오스로 국경을 넘기 위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마침 우돈타니는 라오스와 인접해 있어서 육로로 국경을 넘기 좋았다.

사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우돈타니에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없었다.

오직 솜탐에 대한 기대만으로 우돈타니로 향했다.

아무리 솜탐이 좋다고 하지만, 재미없는 도시에 장기간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주 짧게 체류하고 라오스로 넘어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곳에서 꽤 오래 머물게 되었다.

관광지 같지 않은 분위기가 머물수록 매력적이었고, 평범한 도시의 북적거림과 부지런함도 좋아졌다.

그리고 나 역시 열심히 솜탐을 찾으러 다녔다. 그러던 중, 운명의 식당을 만나게 되었다.

외국인이나 관광객은 없지만, 현지인들의 주문으로 바쁘게 작은 절구에 재료들을 찧으며 솜탐을 만드는 젊은 장인(주관적인 시선이지만, 장인이라 하고 싶다)이 있는 식당이다.

숙소에서 꽤나 멀지만, 하루에 한 번은 어떻게든 식당에 들러 솜탐을 배 터지게 먹고,

숙소에 가서 먹을 솜탐을 포장하고, 다른 여행자에게 선물할 솜탐도 잊지 않고 챙겼다.

앞서 김치에 비유된다고 언급한 것처럼, 솜탐은 다른 음식들과도 궁합이 좋다. 아무래도 자극적이다 보니 밥생각이 절로 나는 음식이기도 하고.

이 식당은 훌륭한 솜탐에 어울리는 음식들을 함께 판매한다.

스티키라이스는 몇 백원의 아



주 저렴한 가격에 주문할 수 있는데, 찰기없는 동남아의 보통의 쌀과 다르게 우리의 밥과 비슷한 찰기를 갖고 있다.

비닐에 밥이 담겨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다.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금방 딱딱해지기 때문이다. 한 손으로 스티키라 이스를 잡고 비닐을 조금씩 벗겨가며 밥 한입, 썸땀 한입을 먹는 것은 최고의 조합이다.



그리고 식당 입구부터 연기가 자욱하게 바비큐 그릴에 닭다리와 닭날개, 계란을 굽고 있는데, 닭고기를 아주 예술로 구워주신다. 부드럽고 탱글한 닭고기와 썸땀의 조화 역시 반드시 먹어야 할 조합이다.

곳은 날씨에도 썸땀이 그리워 비를 뚫고 식당을 갔었다. 그 날 사장님이 건네주셨던 따뜻한 국물이 생각난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먹으려고 만드셨다는데, 기름기 없이 담백하면서도 진한 육수에 당근 두 조각이 동동 떠있었다. 한 입만으로도 온 몸을 녹여내는 깊은 맛이였다.

친절하고 다정한 직원들과 사장님 그리고 훌륭한 음식까지. 한국인에게 유명한 비싼 식당도 가봤지만,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 식당이 내게는 최고의 맛집이였다.

나에게 우돈타니는 재미없는 도시가 아니다. 먹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고, 행복이란 건 그리 어렵게 찾아 헤매지 않아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따뜻하고 정 많은 소중한 도시다. 🐱





김 희 진  
노동자

## 점선에 갇힌

A

집 근처 놀이터가 철거되고 있었다. 섭섭한 마음에 서먹한 친구의 상을 치르듯 잠시 벤치에 앉았다. 전공 책 한 장을 찢어 비행기를 날렸는데, 내 마음과는 반대로 날아간다.

B

나는 한때 열렬히 신에게 정신을 바쳤다. 정신착란자에게 바들바들 떠는 흰나비를 보인들 저어기 자빠져 널브러진 종잇조각과 무엇을 다르다고 논할까.

D

사랑받을 수 없다면 아예 버려지고 싶다.

C

오늘도 몰래 남은 고기를 챙겨왔다. 다들 버리는 것을 조금씩 모으니 며칠은 먹을 수 있었다.

D

당연하지만 기하적인 관점에서 가장 먼 것이란 정의할 수 없다. 가깝지 않으면 다 먼 것이다. 그렇다고 바닥에서 도약하길 주저해서는 그대로 관에 갇히는 것이다.

B

허리를 내놓고, 머리에 핀을 꽂은 뒤에 끊임없는 동작을 보인다.

D

그날 나는 구름에 싸여 얼굴을 잃었다. 주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라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긴 시간 동안 조금 지쳐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쉬고 나면 나를 성질이라고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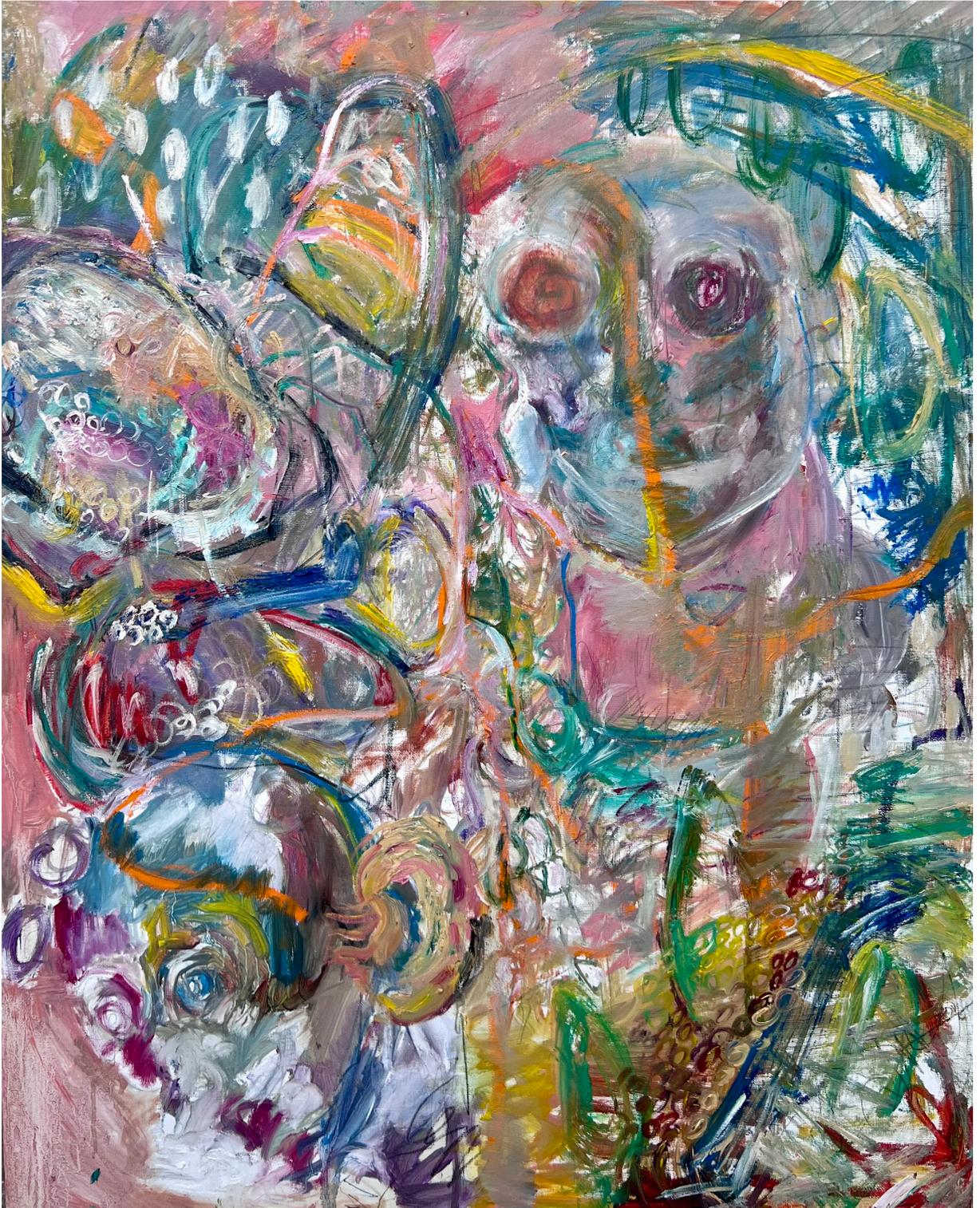
C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끈을 놓고 있었다. 최근에 힘든 것이 있다면 내 운명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포기했다. 그러다 사고로 얼굴을 잃었다.

A

그토록 집착하던 것이었는데, 잃고서 바라보니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었구나 싶었다. 지금껏 놓아온 것에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



B

이제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얼굴이 성했다면 내가 주연을 따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D

그래, 너는 일평생 다른 이를 기만하며 연기를 잘 해내었으니까.

B

정말로 내가 행복한 것처럼, 슬픈 것처럼, 곧 죽음을 맞이할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직업으로 하자는 마음이었다.

A

행동 하나에 신경을 집중하고, 대사 하나에 마음을 담아내는 것도 내 특징 아니었던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날 때부터 한 대서사시의 주인공과 같이 살아가고 있던 것일지 모른다.

C

지금 얼굴이 없어진 것도 신의 연출일까.

D

확산하는 파면이 가슴에 일었다. 고무로 된 공을 창문 밖으로 마구 던졌다. 그래도 당연히 성이 풀리지 않았다.

B

가끔 심장이 제 것이 아닌 듯 뛰는 때가 있다. 얼굴이 갈리던 그날이 떠오른다. 사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는 것이었다.

A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찢어진 왼쪽 볼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 참에 나는 새로 만드는 것이 낫겠다며, 머리채 한 쪽을 잡고 상처를 오려내었다.

C

하지만 얼굴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신은 없었다.

D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럴듯한 뒷골목이 보이면 터를 잡아 몸을 눕혀 살고 싶다.

A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며 아무도 감각하지 않는 낮은 곳에 나를 감추고 싶다. 차라리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괴로워하고 싶다.

B

그러면 이렇게 생긴 얼굴의 부드러운 주름은 내가 미워하지 않고 감싸 안아줄 자신이 있다. 거짓말이다.

C

읽고서 바라보면 더 소중한 것이다.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다. 가슴을 짝 움켜쥔

---

다. 이미 잃었고, 찾을 수 없다.

A

사실 나는 자유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고 당시 나는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B

이대로 끝없이 상승할 거라고 믿었다. 상상할 수 없던 빛이 눈꺼풀 아래에 있었다. 그 끝은 삭제였다. 그것이 전부였고, 찾던 것도 그대로 있다.

D

다시, 찾던 이상은 그런 것이었다. 지워 없앴. 너무 많은 것이 지워졌다.

C

나는 내가 망가뜨렸다. 아득히 먼 곳에서 온 사슬도, 명멸하는 부정어들도 누가 지어낸 것인지를 잘 안다.

B

하지만 이 또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도 비는 쏟아진다. 나는 누구처럼 묵묵히 나를 외칠 수 없다. 아이처럼 울고, 내가 여기 있다며 떼쓴다.

D

문장과 시와 드라마도, 이름도 모두 가져야만 울음을 멈출 수 있다. 구태여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란다.

A

오히려 불려지지 않은 유일한 이가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두려워 이리저리 굴러 만든 솔기를 다시 한 번 쓸어내린다.

B

급한 성질에 바라는 세계가 사라지기전에 붙잡아낸다. 손은 다시 차례대로 세워진다. 입을 있는 대로 찢어 발겼다.

A

너무나 많은 열등감과 혐오가 나를 감쌌다.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다. 차라리 길치가 되거나.

C

(곧바로 이어서) 이방인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A

벌써 익숙해져 알아버린 길을 지워내는 것에 열중해야 했을 것이다.

D

하지만 다시 두려워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뭣도 없으니까 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얻어맞는 것은 어려서부터 익숙했지만, 반가울 수 없다.

B

몸을 부들부들 떤다. 그래도 한 번 꿈틀거릴 수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C

독무가 시작되고, 입술이 움직이면 발목이 비틀린다. 머리를 밀고, 앉았다 일어서

인형들을 지휘했다. 흘러가는 순리를 그대로 따르지 못한다. 괜히 손을 쥐었다 핀다.

B

날아간 얼굴 또한 몸과 자아 사이의 구분된 매개, 행동된 몸짓이다. 🐈





이 채연  
창작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 고양이 그리고 그림



그림1\_꽃무늬 쿠션에서 자는 고양이, 디지털 페인팅, 2024

지난 2월16일 부터 28일 태국의 끄라비와 방콕을 다녀왔다.  
여행 중 인상에 남은 일을 남긴다.

끄라비에서

아침식사를 사러 들어간 들어 간 어느 식당.

음식사진이 없는 메뉴판을 번역기 써가며 공부하듯 보고 주문을 한다. 주문이 잘 된 것인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메뉴판 공부하는데 머리를 썼고, 배도 고프고 하니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다. 의자에 앉는다.

이곳에서 고양이를 많이 봤다. 이 식당에도 있다.  
옆테이블 벽에 붙은 긴 의자에 고양이가 자고 있다.  
이 식당이 생기기 전부터, 여기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리 잡고 있다. 식당에 손님  
이 앉을 자리가 없어도 이 고양이는 건들이면 안 될 것 같다. 자연스럽게 독보적  
이다.

고양이가 기댄 벽에 그림이 걸려 있다.  
좋다! 조용히 감탄사가 나왔다. 요즘 작업(미술)을 보는 것이 재미없었는데 이 그림  
은 내 취향이었는지, 진짜 특별한 매력이 있었는지 좋다고 느꼈다. 고양이가 기  
댄 벽에 살짝 삐딱하게 걸린 그림, 그 아래 방석, 쿠션들이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일으켜 그림이 좋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디스플레이의 힘?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계산하며 카운터에 있는 남자 사장님께 그림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한국식 영어로 “디스 픽처 이즈 굿! 그레이트!!”라고 말했다. 내 말이 끝  
나기도 전에 카운터 안쪽 주방에서 작은 몸집의 히잡을 쓴 여자가 나왔다. 태국  
식 영어로 “마이 썬즈 픽처. 웬 세븐 이어즈. 살짝 부끄러운 듯, 자랑스러운 듯 상  
기된 얼굴로 웃음 지으며 말하셨다.  
엄마들의 마음은 어딜가나 같구나 싶었다. 나도 어느 명작들보다 아들의 작품이  
좋다.

아들이 18살?에 그렸다는 다른 그림도 보여주셨다. 그 그림도 식당 벽에 걸려 있  
었지만 내 눈길을 끌어 잡지는 않았다. 내가 보기엔 표현이 과잉된 것 같았다. 그  
런 표현이 싫거나 나쁜건 아닌데 요즘 내가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아들이기가 싫어  
서 그런 것 같다.

이날의 느낌을 살려, 식당의 분위기. 고양이, 그림, 쿠션, 벽을 그렸다.  
그런데 식당주인인 아들의 그림을 그대로 내가 재현할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좋  
은 그림을 내 스타일대로 그려보니 참..... 참담 했다. 이래서 모사가 어려운 거  
구나! 그리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느낌만 기억해두기 위해 그림상단 중앙에 대충  
네모프레임을 그리다 말았다. 🐱



그림2\_고양이 그리고 그림, 디지털 페인팅, 2024

---



그림3\_끄라비 레일라이 해변, 디지털 페인팅, 2024

---



줄 리  
음식예술가

## 단호박

이제는 더 이상 수프에 밀가루, 버터, 우유, 생크림 넣지 않고도 맛있게 끓일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무엇이이었을까요?

잔잔한 호수에 살그머니 팽그르르 잔물결 치더니 어느 순간 집채만 한 파도로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유방암 1기 환우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자각한 시점은 동네 병원에서 처음 진단을 받고 종합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수술하고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설마 내가(?)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을 수가 아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암환자이구나! 실감했던 때는 항암을 하게 되면서였습니다.

항암,

정말 힘듭니다. 치료의 과정에 하나라고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불과 3~4일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 가 버렸습니다.

걷는 것, 서 있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모두가 내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겨 내야 했습니다.

구토감이 밀려와도 이겨 내기 위해 참고 무조건 먹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무사히 항암을 마치고, 방사선을 끝내고 지금은 추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접시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를 보면서 이걸 내가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구요.

강박감이 생기기도 하구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최우선이다, 세상에 결정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음식에 관련해서는 해방하자.

사실 유방암 걸리기 전 저의 식단은 정말 암 환자를 위한 식단이었습니다.  
라면, 햄버거, 피자 등은 과장해서 100번 이상을 생각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유방암에 걸리는 걸 보면 어쩌면 저는 음식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닥치는 대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구요, 살이 찌지 않은 선에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제가 먹고 싶은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호박 수프를 끓여 아침에 샐러드와 함께 먹었습니다.  
단호박은 썰서 그냥 먹기도 하고, 샐러드에 아니면 메인 요리 시 곁들임 채소로 많이들 이용하죠?  
오늘은 노밀가루 노버터로 담백하게 단호박 수프를 끓이는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해요

저는 암 추적 관찰 중에 있으니 기존의 제가 해왔던 방식보다는 식재료를 살짝 바꾸어 봅니다.  
단호박과 양파는 기본 식재료, 버터 대신에 아보카도 오일, 밀가루 대신에 귀리, 우유와 생크림 대신에  
두유를 이용해보입니다.  
귀리를 먼저 하루 전에 물에 불려 두거나, 귀리 가루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단호박은 속을 버리고, 껍질 벗겨 얇게 썰어 준비해 둡니다.  
양파는 잘게 썰어 준비해 주세요.  
달군 두꺼운 팬에 아보카도오일 두르고, 양파를 익을 때까지 타지 않게 중불에서 볶아 주세요.  
여기서 양파를 충분히 볶지 않으면 수프를 내어놓았을 때 양파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요.  
양파가 다 익으면 귀리를 넣고 볶아 주고, 잘게 썬 단호박을 넣어 볶아 주다가 물을 조금 부어 모든  
재료가 익을 때까지 끓여 주세요.  
모든 재료가 익었을 때 블렌더를 이용해 곱게 갈아 준 후 분량의 두유를 넣고 끓여 주시면 완성입니다.  
간은 소금 후추로 간을 하면 맛있고 따뜻한 단호박 수프 완성입니다.  
확실히 버터와 우유, 생크림이 들어가지 않으니 고소한 맛은 덜하지만, 단호박이 주는 달콤함과 담백한  
향기로 인해 아침 식사 한 끼로도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통밀 식빵에 반숙계란, 아보카도 반개와 곁들여 먹으니, 든든한 아침 식사로 행복합니다.

---

이왕에 찾아온 녀석이니 토닥토닥 다독여 주며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잔뜩 흐려졌던 하늘이었는데 고개 들어 보니 창밖으로 눈발 휘날립니다.

癌 한자에서 보다시피 입구가 세 개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암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많이 먹었지?

지난 과거보다는 이제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많이 먹지 않고 즐겁게 먹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제 이 드  
이루려는 자

## 생존일기 II

나는 거울을 깬다.

바쁜 스케줄 속에 정말 오랜만에 쉬는 날 집에서 늦장을 부려보는게 얼마만인지...집에 계신엄마와 느지막이 점심을 먹으며 부엌 식탁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6살 된 둘째 딸아이는 그런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에 얌전히 앉아 엄마의 화장품 파우치를 신기한 보물이라도 되는양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가지고 놀았다. 하지만, 여느 아이들이 그렇듯 손에 힘이 없으니 아이는 손에 쥘 화장품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화장품은 물론이고 거울까지 와장창 깨뜨렸다.

그 순간 정적이 흐르고 우리 셋은 깨진 거울과 화장품을 쳐다 보았다.

산산조각이 났다. 이 찰나의 정적 동안 주변 눈치를 살피던 둘째는 머뭇거림 없이 거울로 손을 뻗었다. 나는 너무 놀랐다. 저 어린것이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 보들 보들한 손가락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다니. 상상만 해도 아찔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혼날까 봐 무서워서였나? 자기 잘못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 순간 별의별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소리쳤다.

“안돼,안돼! 손대지마 위험해! 뒤로 물러나!”

“oo야 엄마가 치울 게 그냥 뒤!”

라고 아이에게 말했다. 약간 격앙된 말투 때문이었는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얼굴이 되어 나를 쳐다보았다.

“너 잘못된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 화내는 거 아니고,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

마루로 가서 다른 장남감 가지고 놀아 엄마가 다 치우면 부를게!”

나는 아이를 부엌에서 내보냈고, 깨진 화장품 가루와 거울을 치웠다.

---

---

혼자서 거울 조각을 하나씩 치워낼 때마다 내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났다.

이상했다. ‘왜 나는 화가 안 나지?’

어릴적 나는 엄마의 손거울을 깨고는 시쳇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었는데...  
그런 잘못을 한 아이는 당연히 그 정도는 혼나야 하는 것으로 적어도 40여년을 알고 살아왔는데...

내 화장품 거울을 깬 아이에게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손대지 말라고 너무 크게 말해서 애가 놀라지는 않았나 걱정되는 내가 너무 이상했다.

큰 거울 조각들을 치우고, 아주 작은 가루들이 떨어진 곳은 없나 살피고, 깨끗하게 치우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는 왜 화가 안 나는 건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당시 품질 대란이었던 유명한 화장품이라 다시 구하기 어려웠고, 오랜만에 맘에 쏙드는 화장품이라 아꼈던 것이지만, 그까짓 화장품 깨졌다고 해서 그리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가 놀랐을까 봐, 다칠까 봐 걱정되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했다.

나는 어렸을 때 엄마의 손 거울을 깨서 죽도록 맞았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연립주택에 살던 우리 집에는 비좁은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었다. 나는 세탁기 옆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화장실을 나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화장실 문을 가로막고 앉아서 걸레를 빨면서 짜증을 내고 계셨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엄마는 이미 짜증이 좀 나 있었고, 나는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신경질이 난 엄마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느낌이있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조심하려고 맘먹고 엄마를 살짝 피해서 문밖으로 폴짝 뛰었지만, 언제나 그랬듯 그것이 화근이었다. 엄마를 피해 폴짝 뛰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폴짝 뛴 덕분에 세탁기의 둥그스름한 두 경에 위태롭게 놓인 손거울을 툭 치고 말았다. 자개 무늬가 있는 꽤 고급스러운 그 손거울은 세탁기 위에서 핑그르르 한 바퀴 돌더니 화장실 타일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지며 와장창 깨져버렸다. 하아.....

---

나는 정말 그날 죽도록 맞았다. 러닝에 팬티만 입고 온 집안을 엄마를 피해 죽을힘을 다해서 도망 다녔다. 파란 비닐이 쓰여있는 나무 빗자루 손잡이가 그날의 회초리였다. 그런 거의 각목 수준이어서 그날은 정말, 특히 아팠다. 우리 엄마는 화가 나면 얼굴이고, 머리통이고, 등이고, 다리고 마구잡이로 두드려 패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필살로 도망을 쳐야 했다. 맨날 몸이 아프고 힘이 없던 엄마는 나를 때리고 화낼 때만큼은 엄청난 괴력이 솟아났다. 맞다가 너무 아파서 동생을 방패 삼아 장롱 뒤까지 들어갔지만, 엄마의 매를 피할 순 없었다. 그날은 좀 엄마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아 결국 난 속옷 차림으로 어두컴컴한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제야 나는 겨우 엄마의 매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커서 시집을 가고 둘째 아이가 거울을 깨는 그날까지도 나는 엄마의 거울을 깬다는 것은 죽도록 맞아도 싹 짓거리라 생각하고 평생 살아왔다. 내가 어떤 잘 못을 했을때에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하다 받아들였고, 나또한 그런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아끼는 거울을 깬 내 딸아이에게 아무리 화를 내려 해도, 단단히 혼을내서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어야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화가 나지 않았다!

단지,그냥 아이가 다칠까 봐 걱정되었지, 거울 따위 화장품 따위 걱정되지 않았다!

그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거울을 모두 치운 후,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는 내 아이가 거울을, 화장품을 산산조각내어버렸는데 이상하게 화가 하나도 안나, 아이가 다칠까 걱정되기만 해.

근데 엄마, 엄마는 그때 혹시 왜 그랬어? 나를 때릴 때 어떤 마음이었어?

내가 거울 깬 때 말이야! 나 그때 정말 오늘은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맞았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화가 났었어?”

---

엄마는 기억이 안 나신다 하셨다. 너무 서럽게 울먹이시며,

엄마는 예전에 나를 몇 번 때린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고된 시집살이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신다….

내가 시어머니를 많이 닮아 나만보면 시집살이 하던생각에 치를 떠셨다 하셨다.

아마 그래서 내가 많이 맞게되었을꺼라 하시며

고된 시집살이가 다시 생각이 나셨는지 엄마는 펑펑 우시며 방에 들어가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때린 적은 없을 거라 하셨다.

처음이었다. 엄마에게 왜 나를 때려야만 했냐고 물은 것도 처음이고, 엄마의 행동이 무언가 이상했음을 느낀 것도 처음이었다.

나는 엄마와의 무언의 결계를 갠 느낌이었다.

그날부터였다.

내 인생이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것.

나는 나의 모습과 내 엄마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엄마와 나 사이의 거울을 갠 것이다. 🐱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의견을 들읍니다  
문화예술인,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  
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  
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하겠습니다.  
pigheadlab@gmail.com / 프로필 이미지, 필명, 자기소개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  
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  
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  
여 피그헤드랩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3, 스물한번째

발행 / 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www.pighea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참여 필진 :

김가영, 김희진, 김유주, 이채연, 제이드, 줄리